

학교탐방

광산초등학교

“바르고 슬기로우며 건강한 어린이 육성”

이태운 교장 부임 후 환경개선 사업 ... 도서관 시설개선 · 도서확충 · 책 가까이하는 습관 길러

“바르고 슬기로우며 건강한 광산어린이.”

광산초등학교(교장 이태운)는 진부령 끝자락에 위치한 전형적인 농산촌 마을인 간성을 광산리에 소재한 전교생 51명의 작은 학교다.

광산초교 이태운 교장을 비롯한 23명의 직원들은 즐거운 학교, 오고 싶은 학교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1942년 개교한 광산초교는 올해 제56회 졸업생까지 총 3,024명의 인재를 배출했다. 저출산의 효과로 지금은 전교생이 51명에 불과하지만, 변화와 혁신에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태운 교장은 부임이후 교육환경 개선



이태운 교장

을 위해 교실 및 복도 마루 교체, 출입문 교체,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편의시설(엘리베이터, 장애인 유도봉) 설치, 학교 울타리 석축공사 등을 실시했다.

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교행사 운영(운동회, 입학식, 졸업장수여식) 및 광산교육발전을 위한 장학사업(총동문화, 애향회, 초석회 및 지역 유관단체)을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광산교육공동체 운영으로 지역주민과의 가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특히 특색있는 교육을 위해 학교도서관 시설 개선 및 아동도서 · 학부모 도서 확충에도 힘썼다.

아울러 학교도서관 편의시설 확충 및 학부모와 지역주민 독서교양강좌운영, 매월 1회씩 교내 독서행사 운영을 통한 지역사회 정보센터로서의 학교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다.

이밖에도 올바른 인사법 익히기 방안으



광산초등학교 전경

로 삼박자 인사하기, 칭찬 문화 조성을 위한 칭찬 릴레이, 소질 계발을 위한 꿈자람 발표 등 인성교육 브랜드(KS 금강동이 기르기)를 강화하고 있다.

광산초등학교는 또 매월 1주와 3주째 토요일 교내 꿈자람 발표회를 열어, 학생들의 자기표현력 신장에 최선을 다하고 있

다.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는 전교생 대상으로 교내 독서 행사를 실시해 책을 가까이 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고 있다.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에는 학교도서관 이벤트로 책을 많이 읽은 학생을 선정해 각종 선물도 증정하고 있다.

박승근 기자

김광섭의 고성이야기 <3>

고성팔경(高城八景) ③송지호(松池湖)

울창한 송림에 둘러져 있는 석호(潟湖)

간성 읍내에서 남쪽으로 공현진을 지나서 7번국도 변에 있는 자연 석호인 송지호는 죽왕면 오호리와 인정리에 인접해 있으며 오봉리 산167-1번지에 위치해 있는데 면적은 640,336㎡이다.

울창한 송림에 둘러싸여 이름 붙여졌으며 본래는 송지포(한자명: 松地浦, 松池浦)라고 하였다.

조선시대 간성현감을 지낸 탁풍당(澤風堂) 이식(李植)의 편찬한 『수성지(水城誌, 1633년)』 「산천편」에 의하면 “고을 남쪽 20리에 있으며 주위는 5, 6리나 된다. 좌우로 펼쳐진 송림(松林)이 거의 몇 리에 이르는데 선박 재료를 관청에서 쓴다 하였으며 송림은 바닷가에 소나무 숲이 있는 곳이 7군데가 있는데 영랑호, 광호, 황포, 송지포, 선유담, 반암, 화진포가 이곳이다. 어떤 곳은 2,3리이고 어떤 곳은 3,4리이다. 송지포와 선유담은 잇닿은 길이가 10여리인데, 뜨거운 햇빛이 들지 않고 아래에 부드러운 모래가 있다. 관청에서 그 아래에 길을 뚫었으며 예전부터 나무꾼이 베는 것을 금지했다고 한다. 세속에 전하는 말로는 도선(道善)대사가 해수면을 차단하여 사람이 사는 곳을 보호하려고 동해 바닷가의 모래톱에는 모두 소나무를 심어 금지했다고 한다. 그러나 영동의 바닷가 모래톱은 파도가 밤낮으로 부딪치고 있으므로 소나무 숲이 아니면 해변의 농지가 붕괴되니, 방책을 쓰지 않았을까 한다.”고 기록하고 있다.

근래에 와서는 다른 이름으로 ‘쌍안경 호수’라고 불리는데, 이는 오봉산의 줄

기가 호수 안에 뻗어 그 생김 모양이 좌우(左右)로 쌍안경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송림에 둘러싸인 맑은 물, 푸른 동해 바다와 어울려 호수에 비친 달빛은 그 아름다운 정경을 자아낸다.

전설에 의하면 약 1,500년 전에는 이 호수가 정씨(鄭氏)라는 구두쇠 영감의 문전옥답(門前沃畝)이었다고 한다. 하루는 노승이 찾아와 시주를 청하니 거절함으로 노승이 노하여 쇠절구(鐵臼)를 논 한 가운데에 던지고 사라졌다. 그 뒤로 쇠절구에서 물이 솟아나 송지호가 되었다고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송지호는 최대 수심 5m인 자연 석호(潟湖)이다. 석호는 해류, 조류, 하천 등의 작용으로 운반된 토사가 바다의 일부를 폐쇄함으로써 바다에서 호수가 떨어져 나오거나, 해안에서 바람이 모래를 운반하여 바다를 분리한 호수로서 해안 지형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그 시기가 대략 3,000년 전이라 말한다. 동해안에 발달한 석호는 모두 이런 과정을 거쳐 형성된 자연호수들이다.

송지호의 주변에는 여름이면 인근에 있는 백사장 길이 700m, 폭 100m로 모래의 질이 좋고, 백사장이 4km 정도의 송지호 해수욕장은 1977년 10월 15일 국민관광지로 지정된 뒤 각종 위락 시설물(오토캠핑장)이 설치되어 있어 연중 관광객이 많이 찾아들고 있다. 겨울이면 철새의 도래지로도 유명하다(철새관망터위).

또한, 가을이면 호수 뒤편에 자리 잡



고 있는 왕곡마을은 중요민속자료 235호(2000,1,7) 보존지구로 지정된 전통 마을로서 100년이 넘는 기와집 20여 채와 초가집 30여 채가 있다. 마루, 부엌, 외양간 등이 나란히 붙어있는 ‘ㄱ’자 형태의 함경도 북방식 전형적인 가옥구조를 보여준다. 마을에서 2004년 1회 ‘고성왕곡마을 축제’를 시작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다.

송호정(松湖亭)은 죽왕면 인정리 산 22-2번지 위치에 있는데, 1959년(己亥年) 3월에 기공식(起工式)을 기하여 동년(同年) 10월 3일에 완공하였다. 당시 죽왕면장 최창길(崔昌吉), 부면장 함인산(咸仁山), 전임면장 안정훈(安貞勳), 김원섭(金元燮)등의 발의로 지어진 정자로 1994년 전체적으로 보수하였으나 96

년 대형 산불로 소실되어 97년 8월에 다시 건립되었다.

정면2칸, 측면2칸의 팔작지붕으로 겹처마이다. 북측으로 계단 있으며 ‘송호정’이라 현판 하였으며 월전(月泉) 함귀호(咸貴鎬)선생의 글씨(書), 소제(素齋) 이창석(李昌錫) 각자장(刻字匠)이 새겨(刻) 놓았다. 현재는 비지정문화재이다.



김 광 섭

- 향토시학자
-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 위원
- 고성향토문화연구회 사무국장
- 논문 : <선유담의 고찰>, <간성의 만경대와 누정 고찰>